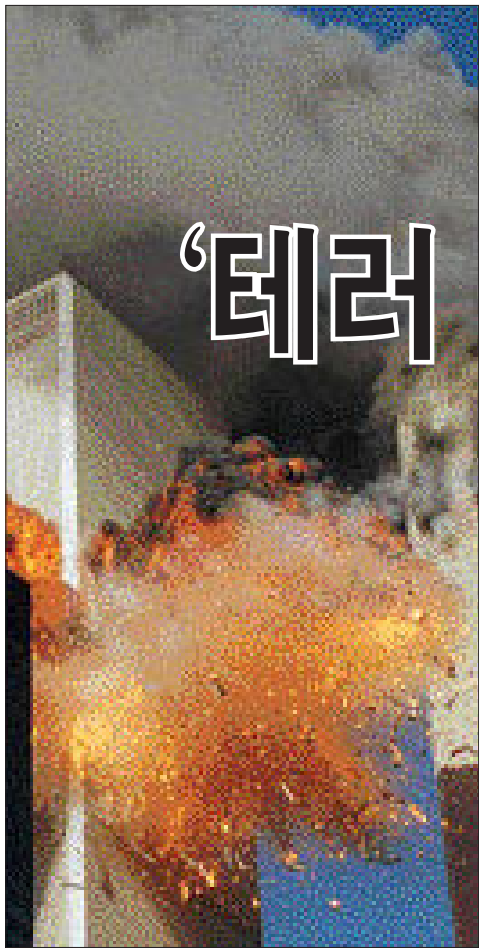


9·11 테러 5주년

0 달라진 미국인들 생활상

현장과 시각



‘테러 노이로제’ 이상징후 땀 올 스톱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하루동안 미국 항공사 소속의 여객기 6대가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상착륙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항차질을 빚었다. 유에스에어웨이의 여객기는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자 출발지인 오클라호마 공항으로 되돌아갔다. 뉴욕발(發) 아일랜드 더블린행(行) 에어링거스 항공 소속 여객기는 폭탄위협이 제기되자 아일랜드 서부지역에 긴급 착륙했으나 조사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운항차질도 이처럼 ‘단순 해프닝’이었을 뿐 심각한 위협은 없었다. 28일 콰이어항공사 소속의 여객기가 캔터키주에서 영종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다가 추락, 탑승자 50명 가운데 4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미국인들은 테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 화물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 등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미국인들은 심지어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도 가방수색은 물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번거로움이 일상사가 돼 버렸을 정도다. 이 같은 테러에 대한 경계강화는 테러에 대한 노이로제로까지 발전돼가고 있다. 테러와 관련해서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포착돼도 모든 정상적인 활동은 중단되는 상황을 수시로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 워싱턴의 미 의회 건물은 4시간 이상 폐쇄되다시피했다. 하원 의원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레이번 빌딩 주차장 인근에서 총성과 유사한 굉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인근 공사장에서 들려온 굉음을 폭발음으로 잘못 간주한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지난 2005년 5월11일 낮엔 항로를 벗어난 2인승 세스나 경비행기가 실수로 워싱턴 상공의 비행제한구역에 침입하자 테러경계 최고수준인 ‘레드’가 발령돼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등 근무자들이 맨발로 대피하고 F-16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9·11 5돌을 앞둔 지난 8일 한 어린이가 퀸즈 대학에 전시된 3천여개의 미국 국기를 사이를 지나고 있다. 이들 성조기는 세계무역센터 공격으로 실종된 사람들을 상징한다. /AP·AFP=연합뉴스

겉핥기만 비상, 후유증에 시달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달라진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9·11테러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안겨준 것은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러공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 던져진 9·11의 더 큰 그림자는 언제 어디서 재발할 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다. 9·11 사태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테러대응기구를 정비하고 초당적으로 구성된 9·11위원회에서 각종 대책을 건의하는 등 테러에 대한 반반의 대비를 갖춰지만 테러의 허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9·11과 같은 항공기 테러는 물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 고층건물 및 공공시설, 핵발전

자생적 테러조직까지-불안 확산

미국인들의 테러불안감은 미국에서도 자생적 테러단체가 적발되면서 더 커져가고 있다. 지난 6월 FBI는 미국내 최고층건물인 시카고의 시어스타워 빌딩과 마이애미 연방청사 건물을 폭파하려던 5명의 미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알카에다와 같은 외부세력은 물론 ‘내부의 적’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되자 미국인들은 이웃 주민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팽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워싱턴=연합뉴스

역설의 당락 언제까지



정후식 정치부 처장

시민단체 ‘행·의정감시 전담연대’는 지난달 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등 전남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법 및 질의 실적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민선 3기인 지난 2002년 7월부터 5·31 지방선거 직전까지 의원들의 의회내 활동내용을 요약한, 말하자면 ‘의정활동 성적표’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년 회기동안 의원 임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10건 이하인 의회가 절반이나 됐다. 5건 이상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질의 건수가 50건 이상 되는 ‘수퍼의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조례안 발의나 질의에 나서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공금증이 들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5·31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의원들의 성적표와 당선자 명단을 대조해보았다. 그 결과 각 의회별로 임법 발의와 질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한 의원들의 경우 당선자 보다 낙선자가 더 많았다. 당혹스러웠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5건 이상 발의한 의원 10명 가운데 5명은 떨어졌고 나머지는 재선에 성공했다. 23개 의회별 최다 질문 의원 중에서도 무려 14명이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의정활동=당선’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다.

민중노동당 비례대표였던 윤남실 전 광주시의원과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 역시 해당 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지역구에 도전해 낙선했다. 특이한 것은 목포·여수·순천 등 도시지역의 경우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의원들의 재선 비율이 높은 반면 낙도나 오지가 많은 농어촌에선 아주 저조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실 정치와 이론과의 괴리 탓일까. 지리적 여건, 아니면 민도(民度)의 차이일까? 의원들의 자기 관리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르다. 의정활동을 등한시 한 채 지역구 관리와 민원 해결에 열성을 보이거나 관광성 위유 등 ‘잿밭’에만 신경을 쓰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 속으로 파고 들어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이른바 ‘생활자치’를 실천하는 것은 민선 4기 지방의원들에게 주어 진 의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비롯 새로 출범한 시·군의회가 이달들어 첫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일로써 심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권자인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감시에 나서야 할 때다. /w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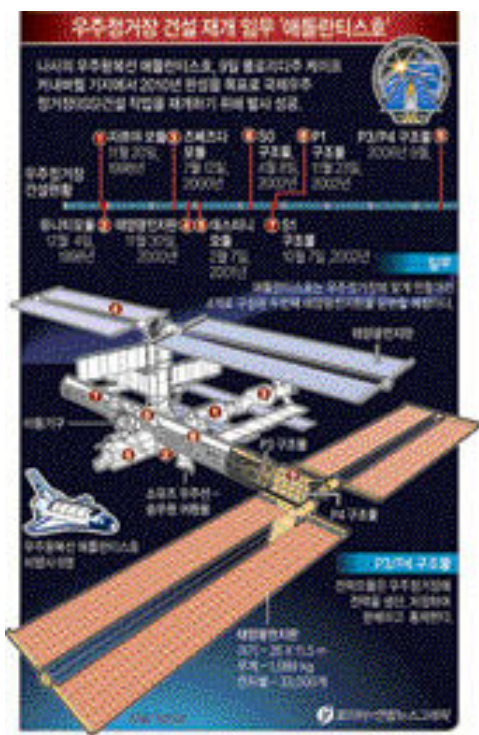
美, 우주정거장 건설 재개

애틀란티스호 발사 성공...“연료탱크 일부 손상” 운항엔 이상 없어

미 항공우주국(NASA)은 9일 국제우주정거장 축조 작업 재개를 위해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를 발사했다. 나사측은 이날 애틀란티스호의 외부 연료탱크 몇 군데에서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일단 궤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7일 발사 예정이었다 약천후로 2주간 지연됐던 애틀란티스호는 이날 오전 11시15분(현지 시간) 발사대에서 정명한 하늘로 솟아올랐으며, 발사 2분 뒤 콜럼비아호 비극의 원인이 됐던 쌍둥이 로켓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애틀란티스호의 브랜트 제트 엔진은 발사 직후 “수천 명이 노력한 끝에 거의 4년 만에 재개됐다”며 “그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애틀란티스호 우주인 6명은 11일간의 여행중 절반쯤 지어진 우주정거장에 지금까지 운반했던 것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무게인 17.5t의 트러스(truss)를 부착 시키게 된다. 3억7천200만 달러 짜리 이 트러스에는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두개의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다. 국제우주정거장 축조는 지난 2003년 2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 참사 이후 3년반 동안 중단됐었다. 우주정거장 건설 재개는 지난 7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13일간의 임무 수행후 지구에 무사 귀환, 콜럼비아호 공중폭발 참사의 원인이 됐던 외부 단열재의 수리 및 검사 시험에 통과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우주인들은 우주 여행중 3차례 우주 유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웨인 헤일 NASA 우주선담당 관리는 애틀란티스호 발사 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선 발사 후 촬영 화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연료탱크 3군데에서 손상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들 가운데 2군데서는 발포 현상이, 다른 한곳에서는 얼음 누출 현상이 각각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들 손상이 우주선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놀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면을 점검한 뒤 정말 안도했다”고 말했다. /케이프캐번디시=AP·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company selling industrial equipment. The main headline is '업소용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Industrial Cooling/Heating Equipment Representative Brand). Below it, it says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Industrial Cooling/Heating Equipment - The more you use, the more money you earn with Century). The ad features a man in a white shirt pointing towards the camera. Text includes '152만원 가격지원' (152 million won price support), '75% 연료비 절감!' (75% fuel cost reduction!), and '무보증 장기일부' (No warranty long-term parts). At the bottom, there is a phone number '1588-8717' and a website 'www.century.co.kr'.

Advertisement for '신명인내' (Shinmyeongeunae), a health supplement. The ad features a green logo and the text '신명인내' in large characters. It includes several columns of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such as '신명인내' (Shinmyeongeunae) and '신명인내' (Shinmyeongeunae). The ad also includes a phone number '1588-8717' and a website 'www.shinmyeongeunae.com'.